

목록

01_9급_국어_전선희_문제.....	1
02_9급_영어_한덕현_문제.....	7
03_9급_한국사_신영식_문제.....	12
01_9급_국어_전선희_정답.....	16
02_9급_영어_한덕현_정답.....	19
03_9급_한국사_신영식_정답.....	24

국 어

출제위원: 전 선 혜 교수

문 1. 문장의 짜임새를 잘못 말한 것은?

- ① 서울과 부산이 매우 넓다. (겹문장)
- ② 그와 나는 심하게 다투었어. (겹문장)
- ③ 어제 순희는 길에서 우연히 영수와 만났다. (홀문장)
- ④ 나는 오늘 빵과 피자를 먹었어. (겹문장)

문 2.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 ① 형 만한 아우가 없다더니.
- ② 차라리 실패할망정 친구를 배반하지는 말자.
- ③ 우리는 만난지 두 시간 만에 헤어졌다.
- ④ 나도 너에게 할만큼 했다.

문 3. 다음 중 형태소의 개수가 다른 것은?

- ① 꿈에서는 더 높이 오른다.
- ② 오늘도 볍음밥을 먹었다.
- ③ 언니의 헛웃음을 보았다.
- ④ 헛손질을 하며 소리쳤다.

문 4. 다음 중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 ① 부슬비, 김북다, 집갈
- ② 볍음밥, 치솟다, 열쇠
- ③ 작은집, 오르내리다, 덮밥
- ④ 날짐승, 앞서다, 새해

문 5. <보기>의 밑줄 친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보기>

만득이는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생긴 것 또한 관옥 같았다. 춘구석에서는 드문 인물들이었다. 만득이가 개천에서 난 용이라면 곱단이는 진흙탕에 핀 연꽃이었다.

- ① 匹夫匹婦 ② 群鷄一鶴
- ③ 以心傳心 ④ 同床異夢

문 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는 언제 어디나 어둠이 없는 대낮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구름·산·흙·바위·풀들의 색깔과 윤곽이 매우 선명하기 때문에, 그리스의 자연은 무엇이나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가장 본질적인 것, 즉 이데아(idea)를 형상이라고 불렀던 철학은 이 풍토의 소산이다. 자연 환경은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개척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들에게 ‘자연적’이란 곧 ‘합리적’이란 뜻이 된다. 이성(logos)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들의 풍토에서는, 우주는 무엇인가 하나의 기획대로 움직이는 것이며 인간은 그 ‘하나’의 존재와 그 움직임까지도 알 수 있다는 믿음이 가능했다. 결국 어느 선행 조건이 같다면 결과는 언제나 같다는 인과율을 신봉할 수 있었다.

반면 고대 중국인은 변덕스러운 자연 속에서 인간의 생각대로만 일이 진행되지는 않음을 잘 알았다. 그래서 이성을 믿고 살았던 그리스인과는 대조적으로 ‘진인사 이후천(盡人事以後天)’의 자세로, 다만 천(天)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천명(天命)·천자(天子)·천의(天意) 등의 낱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성을 믿고 그 본질을 구명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변덕스러운 자연 속에서 그 변화 양상을 찾는, 말하자면 변화 양상의 인식이 사색의 첫걸음이 되었다. 중국인의 철학은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인간이 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문제 삼았다. 그에 따라 중국인들은 삶에 대한 깊은 지혜가 넘치는 인간학을 만들게 되었다.

- ① 이데아 철학은 그리스 풍토의 소산이다.
- ②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다.
- ③ 중국인들은 자연의 변화에 맞춰 삶의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 ④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본질을 구명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는 그리스와 중국이 공통적이다.

문 7. 다음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려 깨워져있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까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 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 ①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문 8.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가) 이것은 ‘영양괘각(羚羊掛角)’이란 녀 자를 몰라서이다. ‘영양괘각’은 ‘영양이 나뭇가지에 뿔을 걸다.’라는 뜻이다. 영양은 앞으로 꼬부라진 뿔을 나뭇가지에 걸고 허공에 매달려 잠을 잔다. 영양의 발자국만 추적하던 사냥꾼은 영양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영양이 ‘글의 뜻’이고, 발자국이 ‘글’이다. 발자국만 더듬거리다가는 영영 영양을 찾지 못한다. 끝진 발자국 위에 걸린 영양을 찾는 것은 사냥꾼, 즉 독자의 몫이다.

(나) “언어는 문자에 실려 있는데, 두 빗장을 뚫어야 비로소 언어의 전달이 문자에 미친다. 전하려는 자는 손으로써 말하고 받으려는 자는 눈으로서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조선 후기의 실학자 최한기는 말했다. 필자와 독자 사이에는 언어라는 섬이 있다. 최한기는 이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개의 빗장을 풀라고 한다. 전하려는 자가 손으로써 말한 것이 한 빗장이라면, 받으려는 자가 눈으로써 말을 듣는 것은 또 한 빗장이다.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이 둘의 빗장이 활짝 열려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 책을 읽는데 문자에만 구애되면, 저자가 행간 속에 은밀히 감추어 둔 문자 밖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다. 많은 이는 말에 나타난 뜻 이외의 숨은 의미를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하곤 하는데도 글자만 읽고 책을 덮는다.

(라) 제 아무리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쓴다 한들 자기 속내를 말이나 글로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한계성이다. 따라서 독자는 말을 전하려는 저자의 속내도 챙겨야 한다. 말하는 저자가 실수로 빠뜨린 경우도 있겠지만, 고의로 생각을 문자 행간으로 밀어 넣은 경우도 허다하다. 이 경우 글의 행간을 읽지 못한다면 저자와 대면할 수 없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라) - (다) - (나)
- ③ (나) - (라) - (다) - (가)
- ④ (나) - (라) - (가) - (다)

문 9. 밑줄 친 한자어의 표기가 잘못된 문장은?

- ① 우리에게는 참신(斬新)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 ② 기밀이 누설(排泄)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
- ③ 그 둘은 결국 과경(破鏡)을 맞았다.
- ④ 이것은 유례(類例)가 없는 사건이다.

문 10. ㉠이 내포하는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은?

현대 사진은 사진의 시간성을 단순히 현실 기록의 수단으로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사진가 자신의 표현 도구로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진의 시간성을 의식한 사진가들은 대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결정적 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진가의 주관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근대 사진가들은 어떤 사건의 전모가 파악될 수 있다고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여겼다. 이것이 대상 혹은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진가들은 결정적 순간이란 사진가가 생각하는 가장 알맞은 순간일 뿐이므로 사진이 반드시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야 한다거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건이나 대상을 가장 잘 찍을 수 있는 셔터 찬스는 사진가의 주관에 달린 문제가 되었다.

셔터 속도를 두고서도 현대 사진은 근대 사진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근대 사진의 셔터 속도는 대부분 1/25초 전후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하게 셔터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이미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었지만, 근대 사진은 대상을 드러내기 위한 기초적 수단으로서의 셔터 속도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보다 빠르거나 느린 속도를 별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1/25초가 일상적인 현실을 묘사하기 위한 가장 알맞은 셔터 속도였기 때문이다. 현대 사진가들은 여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 형성에 필요한 셔터 속도를 각자 설정하였다. 그들은 ㉠ 통제 불가능한 객관적 실재로서의 시간을 자신의 통제가 가능한 시간으로 바꾸어 표현하기 위해 셔터 속도를 즐겨 사용했다. 현대 사진의 문을 연 윌리엄 클라인의 「뉴욕」에서 볼 수 있는 떨린 이미지의 사진들은 이러한 셔터 속도의 첫 보기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사진에서도 떨린 사진들이 있었지만 이들 사진은 그 떨림을 의식하고 이를 독자적 이미지로 승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의식하지 못한 우연이거나 정지 화면에 움직임 주기 위한 정도였다.

- ① 사진은 시간의 예술이면서 기록의 예술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이다.
- ② 사진은 기록을 위한 매체라기보다는 예술로서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가진 매체이다.
- ③ 사진은 시간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나 시간을 표현하는 기술은 작가가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사진은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시간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시간 바깥에서 창조성을 얻을 수 있다.

문 11. 다음 중 세 자리 서술어는?

- ① 버스에서 엄마가 칭얼대는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
- ② 이곳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 ③ 오늘 아침에는 장미꽃이 유난히 붉다.
- ④ 동네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칭찬했다.

문 12. 밑줄 친 부분을 글의 흐름에 맞게 고친 것은?

컴퓨터는 수와 기호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 이상, 컴퓨터와 문학 연구 사이에는 아무런 친연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사실 컴퓨터는 문맥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말뜻이나 섬세한 감정의 그림자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우둔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문학 연구에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 착각일 듯도 하다. 하지만 문학 연구도 학문 활동인 한,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며 정리해야 할 필요가 많다. 자료 카드가 수십 장 혹은 수백 장일 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혼란스러운 자료 더미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컴퓨터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는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 문학 연구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 ① 컴퓨터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문학 연구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 ② 컴퓨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문학 연구의 훌륭한 조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③ 컴퓨터는 언제 쓰느냐에 따라 문학 연구의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④ 컴퓨터는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따라 문학 연구의 훌륭한 앞잡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문 1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그가 이 세속의 삶을 마감하였고, 오늘 우리는 그를 보내기 위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그의 이름 권정생, 이제 그 이름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슬픔과 두려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지상의 평화와 통일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강자들의 폭력과 억압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니 사람들뿐 아니라 벌레와 새와 쥐와 개구리, 세상의 모든 약자들에게 진실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존재를 가리키는 영원한 기호(記號)로 되었습니다. <중략>

알다시피 권정생 선생은 1937년 일본 도쿄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뒷날 그는 그곳을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흘러 들어와 모여 사는 빈민가 사람들의 가족 구성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골목길 끄트머리 노리코네 아버지는 조선 사람, 어머니는 일본 여자, 노리코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딸이었다. 건너편 집의 미치코는 주위다 키운 아이고 동생 기미코는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고 우리 앞집 일본인 부부도 양딸을 데리고 살았다. 한 집 건너 경순이는 관동 지진 때 부모를 잃고 거기서 식모살이처럼 얌혀살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권정생 자신은 헌 옷 장수 집 뒷방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그의 어머니가 샴바느질로 생계를 꾸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런 암담한 상황을 “이때 나는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 따뜻한 촉감은 평생을 잊을 수 없다.”라는 말로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도시의 빈민가, 그 소외된 삶의 터전을 생명의 온기가 넘치는 낙원으로 승화시키는 마음이야말로 바로 “강아지 똥”의 메시지이고 그의 문학의 뿌리이며 권정생 선생의 칠십 년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값진 선물일 것입니다.

- ① 고인의 일생 중 특정의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 ② 사실에 근거하여 고인의 삶과 문학을 평가하고 있다.
- ③ 고인과 평생에 맺었던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하고 있다.
- ④ 고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15]

유행이라는 현상은 일정한 시간 안에 새로운 물건들이 생산되어 나와야 하는 시장의 본질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용 가치의 측면에서만 소비생활을 영위할 경우, 시장은 일정 기간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직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물건들을 새 상품을 위해 폐기처분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유행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유행은 상품의 사용 가치보다는 미적 가치의 재충전을 핵심으로 하여, 이전의 미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얼마나 오래 지속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것인가’하는 관심에서 예술작품을 창조하던 시대는 끝났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명언은 대중문화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 자동차에서 보듯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서 반짝이는 새것을 만들어 낼까 하는 ‘새것 찾는 놀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 한국 철학 사상 연구회, <대중문화와 인간의 삶>

문 14. 이 지문을 가지고 강연을 할 때,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행에는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숨어있다.
- ② 유행은 일시적으로 상업적인 논리를 받아들인다.
- ③ 유행은 대중의 요구에 의해 새로운 미적가치를 받아들인다.
- ④ 오늘날의 유행은 예술의 창조를 통해 자체의 가치를 창출한다.

문 15. 밑줄 친 ㉠에 들어갈 말을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미적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 ② 매년 모델이 바뀌는
- ③ 대중이 요구하는 유행에 민감한
- ④ 욕망의 또 다른 상징물인

문 16. 다음 중 ‘전달 의도’가 가장 강한 작품은?

- ①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여내니,
나 혼 간 둘 혼 간에 청풍 혼 간 맞겨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댜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②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
목걸새 크나큰 장도로리 쫓닥 바가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혼노라.
- ③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밋지 안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푸엿구나.
촉 잡고 갓가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 ④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밋여든 네 논 점 밋어 주마.
울 길헤 뽕 따다가 누에 머겨 보자스라.

문 17.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부적절한 것은?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 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 ① 시적 공간은 '땅끝마을'이다.
- ② '땅 끝'은 시련과 고통의 공간일 수 있다.
- ③ 결국 화자는 '땅끝'에 가서 좌절하게 된다.
- ④ 궁극적으로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문 18. 다음 글의 (가)와 (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가) 사회 복지 정책이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적은 이득을 보게 될 경우, 그 차이만큼 불필요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 정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데 차별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낸 세금의 액수와 그 재화의 이용을 통한 이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적은 이득을 보게 될 경우 그 차이만큼 불필요하게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사회 보험은 각출 원리를 적용해야만 가능한데, 저소득 계층은 보험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므로 사회 보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사회 보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된 공적 부조를 위해 보험금을 부담할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그러나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재화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위해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자유에 맡겨 둘 때보다 그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개인들에게 민간 부문의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유가 주어질 때보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을 때,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전체적으로 높아진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이 높아져야만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소극적 자유는 줄어들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적극적 자유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 ① (가)를 (나)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를 (나)에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 ③ (가)에 대해 (나)에서 반론과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④ (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나)에서 제시하고 있다.

문 19. 다음 글을 읽고, ㉠에 해당하는 수수께끼의 사례를 찾으려면?

우리 선인들의 말 거르기 중 찾을 수 있는 ‘말놀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을 가지고 노는 행위를 뜻한다. 지금처럼 즐길 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던 옛날에 언어는 중요한 놀이의 수단이었다. 예를 들어, 기나긴 겨울 밤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라면 역시 말로 하는 놀이가 으뜸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말놀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수수께끼’이다. 수수께끼는 한자말로는 ‘미어(謎語)’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글자를 가지고 하는 ‘파자(破字)놀이’같은 것도 있다.

수수께끼의 첫 번째 특징은 구연을 할 때 화자, 청자 쌍방이 참여한다는 점이다. ㉠ 두 번째 특징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알듯 말듯 하면서도 쉽사리 알아맞힐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수께끼를 주고받으면 자연스럽게 사고 능력이 훈련되고 창의력이 향상된다.

가령, “도마 밑에 검은 송충이는?”, “감감할수록 잘 보이는 것은?”과 같은 수수께끼는 ‘눈썹’과 ‘별’을 은유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는 몇 개?”, “하나”와 같이 비은유적인 것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일종의 퀴즈라고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수수께끼는 은유를 통해 대상을 정의한다.

- ①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는? - 눈 깜짝할 새
- ② 내 것은 내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쓰는 것은? - 이름
- ③ 배울 것 다 배워도 여전히 배우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 배우
- ④ 머리에 빨간 꽃 한 송이를 피우고 눈물 흘리는 것은? - 촛불

문 20. 다음 글에서 ㉠ ~ ㉣의 논리적 관계를 잘못 말한 것은?

- ㉠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행복만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 ㉡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환경이 오염되고, 새로운 질병이 유발되며, 무서운 전쟁 무기가 개발되어 인류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 ㉢ 또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도의 산업 사회는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키며, 생활을 분주하게 하고, 정신적 압박을 가져옴으로써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 ㉣ 따라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① ㉡은 ㉠의 구체화이다.
- ② ㉢은 ㉡의 부연이다.
- ③ ㉡과 ㉢은 ㉣의 근거이다.
- ④ ㉠은 ㉣의 전제이다.

영 어

출제위원: 한 덕 현 교수

※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 1 ~ 문 2]

문 1. Whenever I watched news on violent sex crimes, I got _____ as a father.

- ① apathetic ② infuriated
③ unblemished ④ intoxicated

문 2. Bolt wanted to encourage more kids to _____ athletics, and he introduced his story about how he began his career as a sprinter.

- ① bring out ② get off
③ pass up ④ take up

문 3. 내용의 흐름상 적절하지 못한 문장은?

Big domestic mammals further revolutionized human society by becoming our main means of land transport until the development of railroads in the 19th century. ①Before animal domestication, the sole means of transporting goods and people by land was on the backs of humans. ②When horses later were yoked to wagons and other vehicles, horse-drawn battle chariots proceeded to revolutionize warfare. Large mammals changed that: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it became possible to move heavy goods in large quantities, as well as people, rapidly overland for long distances. ③The domestic animals that were ridden were the horse, donkey, yak, reindeer, and Arabian and Bactrian camels, and animals of those same five species, as well as the llama, were used to transport packs. Cows and horses were hitched to wagons, while reindeer and dogs pulled sleds in the Arctic. ④The horse became the chief means of long-distance transport over most of Eurasia. The three domestic camel species (Arabian camel, Bactrian camel, and llama) played a similar role in areas of North Africa and Arabia, Central Asia, and the Andes, respectively.

문 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principle a work of art has always been reproducible. Man-made artifacts could always be imitated by men. Replicas were made by pupils in practice of their craft, by masters for diffusing their works, and, finally, by third parties in the pursuit of gain. Mechanical reproduction of a work of art, however, represents something new. Historically, it advanced intermittently and in leaps at long intervals, but with accelerated intensity. The Greeks knew only two procedures of technically reproducing works of art: founding and stamping. Bronzes, terra cottas, and coins were the only art works which they could produce in quantity. All others were unique and could not be mechanically reproduced. With the woodcut graphic art became mechanically reproducible for the first time, long before script became reproducible by print. The enormous changes which printing, the mechanical reproduction of writing, has brought about in literature are a familiar story.

- ① Should We Ban Art Reproductions?
- ② Why Is The Mechanical Reproduction of Writing So Popular?
- ③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 ④ The Greeks' Works of Art

문 5.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 ① The main reason I am against capital punishment is that it is very easy for the law to make mistakes.
- ② I remember hearing of the case of Timothy Evans who was hanged for a murder that he had not committed.
- ③ One of Tom's classmates, having been observed his stiff neck, insisted on his seeing a doctor.
- ④ More than two hundred workers were made redundant due to the recession.

문 6. 어법상 옳은 것은?

- ① The value of his investment has risen by more than \$50,000.
- ② There are many jobs which are related to make advertisements.
- ③ The third man was on the point of evicting by the bailiffs.
- ④ There is no way to prevent jellyfish stings, if you are in the sea surrounding by jellyfish.

※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 7 ~ 문 8]

문 7.

A : Don't you think you should take a vacation?
Even one or two days would be fine.
B : There's no way. There's too much work.
A : But you look so exhausted. You need a break!
B : I know. My chances would be better if they
would hire more people.
A : They won't hire more people?
B : No. They always want to keep the cost down.
_____.

- ① I plan to go to the hospital tomorrow
- ② I can't be like that! I must strive to get a job
- ③ I am really overwhelmed with a heavy workload
- ④ I don't want to think about starting my own business

문 8.

A: Hey, I'm looking for an apartment that is close
to the subway and near my workplace.
B: So you're looking for the best of both worlds? I
think I might have something for you.
A: Really? That'd be great!
B: I've just had a resident move out of a building
that is about a 5 minute walk to the subway and
a 10 minute walk to your workplace.
A: _____
B: I'll have the place ready in a couple of weeks.

- ① Let me have the place suited for my work.
- ② That'd be ideal, when can I move in?
- ③ How soon will the resident move out?
- ④ The subway system will be in good place before long.

문 9.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But with the suckling and cherishing of young
which was distinctive of the new mammalian and
avian strains arose the possibility of learning by
imitation, of communication, by warning cries and
other concerted action, of mutual control and
instruction.

The variety of the universe is infinite and incessant;
it progresses eternally; history never repeats itself
and no parallels are precisely tru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ife of the Cainozoic and Mesozoic
periods are far profounder than the resemblances.
The most fundamental of all these differences lies in
the mental life of the two periods. It arises
essentially out of the continuing contact of parent
and offspring which distinguishes mammalian and in
a lesser degree bird life, from the life of the reptile.
(①) With very few exceptions the reptile abandons
its egg to hatch alone. (②) The young reptile has
no knowledge whatever of its parent; its mental life,
such as it is, begins and ends with its own
experiences. (③) It may tolerate the existence of
its fellows but it has no communication with them;
it never imitates, never learns from them, is
incapable of concerted action with them; that is, its
life is that of an isolated individual. (④) A
teachable type of life had come into the world.

문 10.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understorms receive less attention than other types of extreme weather because they are so common and the damage they cause so localized. Perhaps because they are taken for granted, lightning strikes are the second leading cause of weather-related deaths in the United States (after floods).

- (A) These rainstorms are a manifestation of the process of convection in the atmosphere. Heating of Earth's surface by sunlight and thermal infrared radiation must be offset by energy losses to maintain a stable temperature. The surface does this partly by evaporating water, which then condenses as buoyant air rises.
- (B) Most torrential short-lived rainstorms do not produce thunder and lightning. Data from NASA's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TRMM) show that annual mean rainfall is greater over the oceans than over land. Lightning, however, is an order of magnitude more likely to occur in continental rainstorms than maritime storms.
- (C) The rising air carries water droplets upward until they are too large to stay aloft and fall out as precipitation. When updrafts are vigorous, water drops are easily carried above the freezing level and some collide with fluffy ice crystals to make larger, denser ice pellets called graupel.

-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문 11.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On Friday, Putin smiled benignly as Chirac hailed the Putin years in the Kremlin as "great years for Russia." Chirac expressed his "very deep friendship" with Putin.

- ① gently ② wickedly
③ decisively ④ delightfully

문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On first hearing this seems a rather strange phrase. Why should people put anything under their hats and, even if they were to, why would that be associated with _____?

- ① secrecy ② punctuality
③ hesitance ④ willingness

문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Fresh lime is an indispensable part of Mexican cuisine, but it's getting harder to stomach its price. Lime prices have jumped from under 10 pesos (\$0.75) per kilo (2.2 pounds) last month to nearly 30 pesos per kilo in Mexico, rising by as much as 200%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Climate change and cartel warfare are mainly to blame for the lime price hike. The polar weather gripping North America has crept into much of Mexico and been deleterious to the country's lime growers. At least three of the country's biggest lime-producing states, Colima, Guerrero and Oaxaca, have already suffered from shrinking harvests related to the poor weather. "If prices rise, my information suggests it has to do with the climate," Mexico's economics secretary Ildefonso Guajardo said last week. And the high prices could continue through the winter.

- ① Mexicans Are Suffering from High Prices
② Mexican Lime Cartels Are Still Rampant
③ How Serious Global Warming Is
④ Why Limes in Mexico Are So Expensive

문 14. 글의 내용의 흐름상 적절하지 못한 문장을 고르시오.

Over the long term the printing press increased literacy by making print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Prior to the printing press books were very expensive because it was such a laborious task to hand-scribe a book. ①This created a situation where only the elite were able to afford books and thus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knew how to read and write. ②With the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better quality of books were published and since they were able to be mass produced, the expense was reduced, making books more affordable to the general public. ③It is estimated that by 1500 there were fifteen to twenty million copies of 30,000 to 35,000 separate publications. ④The printing press also had a negative impact on educational practices, and, as McLuhan said, the printed book was a new visual aid available to some students and it rendered the older education obsolete. The book was literally a teaching machine where the manuscript was a crude teaching tool only.

문 1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The WAIS(R) was standardised on a sample of 1,800 U.S. subjects, ranging from 16 to 74 years of age. It was a highly stratified sample, broken down into 9 different age groups. Equal numbers of men and women were used, as were white and non-white subjects, in line with census figures. It was further broken down into four geographic U.S. regions and six occupational categories. The WAIS-R gives two separate IQs for the two scales: verbal and performance. The two scales can be used separately to see if a person has particular strengths or weaknesses. The design of the test, with the two scales, means that the verbal & performance scales can be used alone. The Performance section alone can be used with examinees who are unable to properly comprehend or manage language, or the Verbal scale alone can be used with examinees who are visually or motor impaired. There is little emphasis on speed in this test with only some subscales having time limits and some subscales having bonuses for speed.

- ① The WAIS(R) was administered to 1,800 U.S. subjects, according to each different age group.
- ② The WAIS(R) was divided into 10 job categories including all the parts of the U.S.
- ③ The Verbal section of the WAIS-R can be used with examinees with visual impairment.
- ④ The WAIS-R puts absolute emphasis on speed with the scales having time limits.

문 16.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은?

Mill's *On Liberty* is the most influential statement of his liberal principles. He begins by distinguishing old and new threats to liberty. The old threat to liberty is found in traditional societies in which there is rule by one (a monarchy) or a few (an aristocracy). Though one could be worried about restrictions on liberty by benevolent monarchs or aristocrats, the traditional worry is that when rulers are politically unaccountable to the governed they will rule in their own interests, rather than the interests of the governed. In particular, they will restrict the liberties of their subjects in ways that benefit themselves, rather than the ruled. It was these traditional threats to liberty that the democratic reforms of the Philosophical Radicals were meant to address. But Mill thinks that these traditional threats to liberty are not the only ones to worry about. He makes clear that _____. This is the tyranny, not of the one or the few, but of the majority. Mill sets out to articulate the principles that should regulate how governments and societies, whether democratic or not, can restrict individual liberties.

- ① the minorities should be respected as well
- ② aristocracies are more threatening to the well-being of people
- ③ monarchies consistently pose threats to liberty
- ④ democracies contain their own threats to liberty

※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문 17 ~ 문 18]

문 17.

- ① 이들은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가르친다.
→ They teach their children to be competitive by providing them with every means possible.
- ② 사람들은 장점들이 단점들보다 더 큰 것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The public will have a chance to find out if the benefits are greater than the disadvantages.
- ③ 새로운 연구는 유럽의 새들도 제한속도에도 유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A new study has been discovered that some European birds pay attention to speed limits, too!
- ④ 형편이 더 좋고 더 많은 선택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덜 행복한 것 같다.
→ Despite being better off and having much more choice, people on average appear to be less happy.

- 문 18. ① 나는 화장을 하는 것이 그들을 더 예뻐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 I don't think wearing makeup makes them look prettier.
- ② 대학을 졸업해서야 비로소 공부의 중요함을 깨달았다.
→ It was not until I left college that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study.
- ③ 그는 영문학을 공부할 목적으로 영국에 갔다.
→ He went to England with a view to studying English literature.
- ④ 그들이 군에서 제대했을 때 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다.
→ When they left the army, never in the world do they expect that a group of fans was waiting for them.

문 19. 다음 글의 (A), (B)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Wisdom is so close to knowledge that the one cannot be approached without touching the oth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wisdom, we must contrast it with its brother, knowledge. Knowledge can exist without anyone harboring it, as in a book, a library or a website. Wisdom, (A), is inseparable from its owner. So long as knowledge remains unconsumed, like the book that has yet to be read, it remains inanimate. Yet once the book is read and its instruction put into practice, knowledge can be transformed into wisdom. One definition of wisdom is, therefore, living knowledge. Since wisdom is alive and knowledge is inanimate, the two have different lifespans. Knowledge can be passed on from one person to another by a mere handing over of a book. Wisdom, (B), cannot be bestowed; it must be earned and constantly reaffirmed. Being alive, wisdom possesses a finite lifespan after which it inevitably dies.

(A)

(B)

- | | |
|---------------------|-------------|
| ① for example | therefore |
| ② in the same way | likewise |
| ③ consequently | as a result |
| ④ on the other hand | however |

문 2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Dry basins and plateaus fill the area between the Pacific Ranges and the Rockies. The Columbia Plateau in the north was formed by lava that seeped from cracks in the earth. The heavily eroded Colorado Plateau displays flat-topped mesas and the majestic Grand Canyon of the Colorado River. At its deepest, the canyon's steep walls plunge 6,000 feet (1,829 m). The Great Basin cradles Death Valley, the lowest place in the United States. Canada's plateaus are colder and narrower than those in the United States. East of the Rockies, the land falls and flattens into the Great Plains, which extend 300 to 700 miles (483 to 1,126 km) across the center of the region. The Great Plains reach elevations up to 6,000 feet (1,829 m). Although the plains appear flat, the land slopes downward at about 10 feet per mile (about 2 m per km) to the Central Lowlands along the Mississippi River.

- ① The Columbia Plateau whose top is flat was made of lava.
- ② Death Valley is the second-lowest place in the United States.
- ③ The Great Plains extend 300 to 700 miles.
- ④ The Great Plains are not so flat as they seem, but rather slant downward.

한 국 사

출제위원: 신 영 식 교수

문 1. 밑줄 친 ‘대왕’ 재위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아서, 이 대나무라는 물건은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납니다. 성왕(聖王)께서는 소리으로써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입니다. 대왕께서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입니다. 이제 대왕의 아버님께서는 바다 속의 큰 용이 되셨고, 유신은 다시 천신(天神)이 되셨는데 ……

『삼국유사』 -

- ①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 ② 갈문왕제를 폐지하였다.
- ③ 9서당 10정을 정비하였다.
- ④ 우역을 설치하였다.

문 2.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차 시위운동 후 경찰은 배후에 조직이 있으리라 단정하고 엄중한 취조를 단행하였다. 같은 해 12월 중에 광주 성진회와 독서회가 폭로되어 버렸다. 그래서 일대 검거가 시작되어 약 200여 학생이 투옥되었다. 그리하여 휴교 조치가 내려졌다가 이듬해 시위로 중단했던 2학기 시험을 치르려 했다. …… 한 청년이 불러 “오늘 시험은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하고 시험을 불응하여 백지 동맹할 것을 급장으로서 선포하라!”고 지시하였다.

- ① 이 사건을 계기로 ‘문화 통치’가 시행되었다.
- ② 신간회가 조직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③ 전국으로 확대되어 이듬해까지 동맹 휴학이 지속되었다.
- ④ 순종의 인산일에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벌였다.

문 3. 다음 사건이 있었던 국왕 대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청의 황제가 오라총관 목극등과 시위 포소륵, 주사 악세를 보내어 백두산에 가 보고 국경을 확정하게 하였다. 이때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폐사군(廢四郡)이 다시는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할까 의심도 하고, 또는 육진이 어떻게 되거나 않을까 하여 염려도 하였다. …… 두 사람이 돌아와서 물이 과연 동쪽으로 흐르더라고 보고 하였다. 극등이 곧 사람을 시켜서 돌을 다듬었는데 넓이 2자, 길이 3자 남짓하였으며, 또 분수령에서 밑돌을 취하여 비(碑)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 『만기요람』 -

- ① 금위영이 설치되었다.
- ② 송시열이 처형되었다.
- ③ 상평통보가 주조되었다.
- ④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문 4. 다음 사건 이전에 전개된 역사적 사실을 고르면?

스티븐스는 워싱턴에 갈 생각으로 23일 오전 9시 30분에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오클랜드에 도착했다. 두 애국지사는 알려져 있지 않은 어느 곳으로부터 일찍 그곳에 도착하여 그를 기다렸다. 일본 영사를 동반한 스티븐스가 자동차에서 내릴 때 그들은 좌우에서 그를 공격하였고 세 발의 총성이 연이어 들렸으며, 그렇게 하여 스티븐스는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 『대한매일신보』 -

- 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 ② 나철과 오기호 등이 자신회를 조직하였다.
- ③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이 개시되었다.
- ④ 105인 사건을 계기로 신민회가 해산되었다.

문 5.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왕 재위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 5년 상복(喪服)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반포하고 시행하였다.
- 6년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軍主)로 삼았다.
- 15년 봄 정월에 아시촌(阿尸村)에 소경을 설치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 ② 분황사 모전 석탑이 세워졌다.
- ③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로 개편하였다.
- ④ 병부를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문 6. 다음의 정치 조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여운형, 안재홍 등 좌·우 합작으로 구성하였다.
- 일제가 패망한 후 총독부로부터 국가 통치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 조선 건국 동맹을 계승한 광복 후 최초의 정치 조직이었다.

- ① 김성수, 송진우 등이 참여하였다.
- ② 미 군정청의 지지를 받아 우익이 주도하였다.
- ③ 각 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 ④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다.

문 7. 밑줄 친 (가) 집권기의 사실로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을/를 진강후로 책봉하고 부(府)를 세워 '홍녕'이라 하였으며, 요속을 두고 홍덕궁을 여기에 속하게 하였다. …… (가)은/는 궁궐에 출입하면서 평상복에 일산(日傘)을 펴고 다녔으며, 시종하는 문객이 거의 3,000여 명이었다.

『고려사절요』 -

<보기>

- ㄱ. 만적의 난이 일어났다.
 ㄴ.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다.
 ㄷ. 도방을 다시 확대 설치하였다.
 ㄹ. 담양에서 이연년이 난을 일으켰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문 8. 밑줄 친 '우리 전하'의 재위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였다. ……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되었다.

- 『조선왕조실록』 -

- ① 최윤덕이 4군을 개척하였다.
 ②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되었다.
 ③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
 ④ 간경도감이 설치되었다.

문 9.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정 때에 박원종 등 많은 사람이 청탁으로 공신에 들어가게 되어 훈공의 남조(濫造)라고 공론이 떠들썩했는데, 그가 선비들의 행태가 부정한 것은 이익만 알고 의리를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니 남조된 공훈은 도태시켜 이익의 근원을 막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 조정 신하 중 다시는 그를 변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침내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다. 죽음에 임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읊으니, "임금 사랑하기 아비 사랑하듯 했나니(愛君如愛父) / 저 태양은 나의 붉은 마음 알리라(天日照丹衷)."하였다.

- 『석담일기』 -

- ① 『조선경국전』을 편찬하였다.
 ② 「조의제문」을 지었다.
 ③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
 ④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문 10. 밑줄 친 '오적'이 주장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오적이 경복궁의 시어소에 들어가서 임금을 위협적인 말로 협박하기를, "현재 우정국에 큰 변란이 발생하여 민영익이 참화(慘禍)를 입었으니 장차 대궐을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속히 파천하소서."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이 두려워 도보로 북장문(北牆門)을 나오니, 그 무리들이 유인하여 경우궁에 이르러 가두었다.

- 『경난록』 -

- ①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외국에 파견한다.
 ② 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자를 없앤다.
 ③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하고 그 밖의 재정 관청은 금지한다.
 ④ 외국과의 조약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한다.

문 11.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 시기의 유적인 농포동 유적에서는 흙으로 빚은 토우와 같은 여성상이, 오산리 유적에서는 인물상이 출토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사람과 인물상은 신앙대상이 되고 있는 조상신의 모습을 새긴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며, 수렵의 성공이나 자기 보호, 혹은 수렵과 어로를 상징하는 조상신을 새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보기>

- ㄱ. 고인돌과 돌널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ㄴ. 빗살무늬 토기와 가락바퀴가 제작되었다.
 ㄷ. 주먹도끼와 슝베찌르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ㄹ. 강가에 바닥이 둥근 형태의 움집을 짓고 생활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2. 다음과 같은 글을 쓴 국왕 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은?

달은 하나이며 물은 수만(數萬)이다. 물이 달을 받으므로 앞 시내(川)에도 달이요, 뒤 시내에도 달이다. 달의 수는 시내의 수와 같은데 시내가 1만 개에 이르더라도 그렇다.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달이 본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달은 본래 천연으로 밝은 빛을 발하며, 아래로 내려와서는 물을 만나 빛을 낸다. 물은 세상 사람이며, 비추어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象)이다. 달은 태극(太極)이며, 태극은 바로 나다.

- 『홍재전서』 -

- ① 『고금도서집성』을 수입하였다.
 ② 온건적 타협적 인사를 등용하였다.
 ③ 신해허통으로 서얼의 문반 진출이 허용되었다.
 ④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문 13.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는 신라의 유열로서 종국(宗國)에서 버림을 당하고
승려에 자신을 의탁하였다가, 못 도적 가운데서 우뚝
일어나 흑양을 몰래 점거하여 나라를 세우고 연호를
일컬으면서, 이욱고 삼한의 3분의 2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본래 흉악하여 끊임없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여, 처자를 해치고 공경들을 도륙하니, 백성이
모두 결단이 날 판이었습니다.

<보기>

- ㉠. 후당 및 오월에 사신을 보내 교류하였다.
- ㉡.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였다.
- ㉢. 부석사에 있는 신라왕의 화상을 훼손하였다.
- ㉣.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① \neg , \perp
② \neg , \exists
③ \perp , \top
④ \top , \exists

문 14.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있다. …… 이 나라는 2,000리에 걸쳐 있다. 주현과 관역(館驛)이 없고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의 부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土人)이 적는데, 모두 토인을 촌장으로 삼는다.

- 『유취국사』 -

- ① 대창, 인평 등 독자적 연호가 사용되었다.
- ② 지방에 외사정이 파견되었다.
- ③ 평시서를 설치하였다.
- ④ 책성부의 된장, 술빈부의 말 등이 유명하였다.

문 15. 밑줄 친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도에 걸쳐, 소위 조선 독립 만세 소요 사건이 발발한 뒤로 국외로 탈출하여 재외 불령선인과 연락, 제휴하여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광분하던 중이었는데, …… 조국 광복 운동을 위해서 파괴, 암살, 폭동 등 부단한 폭력을 감행하여 조선의 혁명을 달성함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가) (이)라는 결사를 조직하고, 그 후 본부를 북경, 상해 등지로 전전하다가 ……

- ① 중·일 전쟁 발발 직후에 결성되었다.
- ② 한국 광복운동단체 연합회에 참여하였다.
- ③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 결사였다.
- ④ 단원들이 항포 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문 16. 다음 (가), (나)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그가 활동한 시기 정치와 사회 등의 분야에서 사람이 주도층으로 등장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국가와 사회 운영 방식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였다. 향약의 제정 및 서원의 보급이 바로 그것인데, 먼저 향촌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안향약을 제정하여 향촌 사회가 피폐해지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나) 오래된 집을 유지하려면 유능한 기술자를 시켜 기
 등을 깔고 수리해야 하는데, 국가도 달라진 시대
 에 맞게끔 제도를 고쳐야 하며 바로 이것이 경장
 (更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호
 문답』이나 『만언봉사』 등의 시무 관련 상소를
 올렸다.

- ① (가)는 아동 수신서인 『격몽요결』을 편찬하였다.
- ② (가)의 학풍은 일본 성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 ③ (나)는 수미법 실시를 적극 주장하였다.
- ④ (나)는 『기사실기』를 편찬하였다.

문 17.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때 본국의 승상 김홍순과 양도 등이 당나라에 간혀 있었다. …… 그는 귀국하여 이 일을 조정에 알렸고, …… 나라가 곧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그는 태백산으로 가서 조정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하고 대승(大乘)의 교법을 펼쳤는데 영험이 많이 나타났다.

- 『삼국유사』 -

- ① 대국통에 임명되어 출가자의 규범과 계율을 주관하였다.
- ② 문무왕에게 ‘민심의 성’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③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기 위해 화쟁사상을 제시하였다.
- ④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들여와 지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문 18. 다음 제시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 누가 나라를 열어 풍운을 헤쳤는가 석제(釋帝)의
손자 이름은 단군일세.

무진년 요 임금과 같은 해에 나라를 세우니 우 임금을 지나 하나라에 이르기까지 왕위에 계셨도다.

은나라 호정(虎丁) 8년 을미해에 아사달에 입산하여 신
이 되셨네.

나라를 누리기를 1028년. 어찌 변화가 없었겠는가! 환인의 힘으로다.

그 뒤 164년 어진 사람께서 군신의 길을 열었구나.

- 『동국군왕개국연대』 -

- ①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 ② 민간 설화와 신라의 향가 14수를 기록하였다.
- ③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하였다.
- ④ 고구려 동명왕을 천제의 손자로 인식하고 영웅으로 드높였다.

문 19. 다음에 제시된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서 옳은 것은?

9일 새벽, YH 노조 여성 노동자 187명은 신민당 당사로 농성 장소를 옮기는 데 성공했다. 당일 오전 문동환 목사, 이문영 교수로부터 이들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신민당 김영삼 총재는 당사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은 4층 강당에 모여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등의 플래카드를 걸고 “정상화 아니면 죽음이 다!”라고 쓴 머리띠를 두른 채 농성에 들어갔다.

- ① 김대중이 일본 도쿄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②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유신 반대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 ③ 정부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을 탄압하였다.
- ④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 20. 다음에 제시된 경제적 사실이 있었던 시기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 전정연립(田丁連立)
- 구분전
- 장생고(長生庫)

- ① 풍흉을 고려하여 9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하였다.
- ② 시비법이 시작되었으나 재역전과 일역전이 여전히 존재했다.
- ③ 제언사를 중심으로 저수지 축조가 확대되었다.
- ④ 밭농사에서 농종이 건종으로 대체되었다.

국 어

-정답 및 해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②	②	③	①	②	④	④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③	④	②	④	③	③	④	②

1. [정답] ②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문장론 - 문장의 짜임새

[정답 해설]

‘그’는 부사격 조사 ‘와’와 결합하여, 주어인 ‘나’와 다른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필수부사어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존재하는 홑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서울’과 ‘부산’이 주어이므로 겹문장이다.
- ③ ‘순희’가 주어이며 ‘영수’는 필수부사어인 홑문장이다.
- ④ ‘뽕’과 ‘피자’를 목적어로 갖는 겹문장이다.

2. [정답] ②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한글맞춤법 - 띄어쓰기

[정답 해설]

②번 선지에서는 ‘실패할망정’이 출제의 핵심인데, ‘-ㄹ망정’은 어미이므로 반드시 앞말(어간)에 붙여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풀이]

- ① 형√만한 → 형만√한: 비교형 문장 ‘A가 B만 하다’에서 ‘만’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하다’는 용언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③ 만난지 → 만난√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④ 할만큼 → 할√만큼: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오는 ‘만큼’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3. [정답] ③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형태론 - 형태소

[정답 해설]

- ③ 언니/의/ 헛/웃/음/을/ 보/았/다. (9개)

[오답 풀이]

- ① 꾸/ㅁ/에서/는/ 더/ 높/이/오르/ㄴ/다. (10개)
- ② 오늘/도/ 북/음/밥/을/ 먹/이/었/다. (10개)
- ④ 헛/손/질/을/ 하/며/ 소리/치/었/다. (10개)

4. [정답] ①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형태론 - 단어의 형성

[정답 해설]

- ① ‘부슬비’는 ‘부슬(부사)+비(명사)’, ‘검붉다’는 ‘검-(어미가 생략된 어간)+붉다(용언)’, ‘접깝’은 ‘접-(어미가 생략된 어간)+깝(명사)’의 구조로 이루어진 비통사적 합성어들이다.

[오답 풀이]

- ② ‘북음밥’은 ‘북음(명사)+밥(명사)’, ‘열쇠’는 ‘열(용언의 관형형)+쇠(명사)’의 구조로 이루어진 통사적 합성어들이며, ‘치숫다’는 ‘치-(접사)+숫다(용언)’의 구조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 ③ ‘작은집’은 ‘작은(용언의 관형형)+집(명사)’으로 이루어진 통사적 합성어이고, ‘오르내리다’는 ‘오르-(어미가 생략된 어간)+내리다(용언)’, ‘덮밥’은 ‘덮-(어미가 생략된 어간)+밥(명사)’으로 이루어진 비통사적 합성어들이다.
- ④ ‘날짐승’은 ‘날(용언의 관형형)+짐승(명사)’, ‘앞서다’는 ‘앞(명사)+서다(용언)’, ‘새해’는 ‘새(관형사)+해(명사)’로 이루어진 통사적 합성어들이다.

5. [정답] ②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어휘 - 한자성어

[정답 해설]

밑줄 친 부분의 핵심은 보잘것없는 주변 환경 속에서 유난히 뛰어난 인물들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群鷄一鶴(군계일학: 닭의 무리 속의 한 마리 학처럼 눈에 띄는 뛰어난 인물)’이 가장 알맞다.

[오답 풀이]

- ① 匹夫匹婦(필부필부): 평범한 남녀
- ③ 以心傳心(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
- ④ 同床異夢(동상이몽):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

6. [정답] ④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두 번째 단락에서 “반면 고대 중국인은 ~ 그래서 이성을 믿고 살았던 그리스인과는 대조적으로”라는 서술을 참고하면,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본질을 구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리스의 관점일 뿐 중국인의 관점은 아니다.

7. [정답] ④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문학 - 현대 소설

[정답 해설]

제시된 부분은 송 영감을 중심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면서 “확 분노가 치밀어”,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인물의 분노를 직접 제시하고, 상황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8. [정답] ③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선택지에서 맨 앞에 올 것으로 제시한 문단은 (가)와 (나)이므로 둘 중 어느 것이 앞에 오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가)는 ‘이것은’이라는 지시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맨 앞에 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나)를 맨 앞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③, ④번 중에 답이 있는데, 둘 다 (나) 뒤에 (라)가 오므로 (라)의 뒤에 올 것이 (다)인지 (가)인지만 결정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온전히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독자는 저자가 표현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는데,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다)인데, (다)는 ‘책을 이루고 있는 문자에만 구애되면, 행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므로 ‘행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라는 화제가 (라)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를 배치하면, '이것[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양의 발자국[글]만 더듬거리다가 양[글의 뜻]을 찾지 못하는 상황과 같다'는 비유로, 글의 의미 파악은 독자의 몫임을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글이 된다.

9. [정답] ②번

난이도: 상

출제 범위: 어휘 - 한자어

[정답 해설]

'누설'은 '기체나 액체가 새어 나가거나, 비밀이 새어 나간다'는 의미이며 '漏泄 셀(누) 셀(설)'로 쓴다. '排泄 밀칠(배) 셀(설)'은 '안에서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하거나, 동물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의미한다.

10. [정답] ③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③ ㉠은 사진가가 시간을 통제 가능한 시간으로 바꾸어 표현하기 위해 셔터 속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 앞부분의 '자신의 생각하는 이미지 형성에 필요한 셔터 속도를 각자 설정'이라는 설명과 뒷부분의 '독자적 이미지로 승화'라는 설명을 참고한다면, ㉠이 내포하는 의미는 시간을 표현하는 기술을 작가가 능동적으로 결정하려는 시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첫 문장에 "현대 사진은 사진의 시간성을 단순히 현실 기록의 수단으로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사진가 자신의 표현 도구로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시간은 표현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중심이 되거나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인 예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예술로서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가진 매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④ 사진이 시간을 의식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시간 바깥에서 창조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11. [정답] ①번

난이도: 상

출제 범위: 문장론 - 문장 성분

[정답 해설]

'버스에서 엄마가(주어) 칭얼대는 아이에게(필수부사어) 젓을(목적어) 먹였다.'에서 '먹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지만, 사동사로 바뀌어 '먹이다'가 되면 필수부사어가 필요하게 되므로 세 자리 서술어가 된다.

[오답 풀이]

② 이곳의 기호는(주어) 벼농사에(필수부사어) 적합하다. ⇨ 두 자리 서술어

③ 오늘 아침에는 장미꽃이(주어) 유난히 붉다. ⇨ 한 자리 서술어

④ 동네 사람들이(주어) 착한 일을 한 사람을(목적어) 칭찬했다. ⇨ 두 자리 서술어

12. [정답] ②번

난이도: 하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제시문의 내용은 '문학 활동을 할 때, 컴퓨터가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적으로 일을 행하지는 못해도 도움을 주는 '조수'

라는 표현이 컴퓨터에 가장 적합하다.

13. [정답] ③번

난이도: 하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고인과의 개인적 인연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

[오답 풀이]

① 두 번째 단락에서 고인이 빈민가에 살던 시기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②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고인의 문학에 대한 평가이며, 이러한 평가는 두 번째 단락에서 서술한 고인의 실제 삶에 근거하고 있다.

④ 마지막 단락에서 고인의 말을 인용하여 고인의 문학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14. [정답] ④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계속해서 새 것을 만들어 팔아야 경제적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자본주의의 속성에 의해 대중의 요구에 맞는 새 물건들이 만들어 지면서 유행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결국 유행이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위해 그들의 기호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유행은 창조적이고 생명력 있는 예술과는 거리가 멀다.

15. [정답] ②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글 전체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바뀌는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밑줄의 바로 뒤에서도 '새것', '새것 찾는 놀이' 등을 언급하였으므로 '매년 모델이 바뀌는'이 가장 적합하다.

16. [정답] ④번

난이도: 상

출제 범위: 문학 - 고전 운문

[정답 해설]

전달 의도가 강하다는 것은 작품이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러한 의도는 정서 표출보다는 교훈을 주는 면에서 더 강하다.

①, ②, ③은 모두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지만, ④는 부지런함에 대해 권면하고 있으므로 교훈적이다.

[현대어 해석]

- ① 십 년을 계획하여 세 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에게도 한 칸을 맡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곳이 없으니 (집 주변에) 둘러 두고
보리라.
- ②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내고 싶다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뜰찌귀 수뜰찌귀
배목걸새 크나큰 망치로 똑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이따금 아주 답답할 때면 여닫아 볼까 하노라.

- ③ 연약하고 엉성한 매화 너를 믿지 아니 하였더니,
 눈 (오면 피겠다는) 약속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촛불을 잡고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
 은은한 향기가 주변을 떠돌더라.
- ④ 오늘도 (날이) 다 새었구나, 호미 메고 가자꾸나.
 내 눈을 다 매면 네 눈도 좀 매어 주마.
 오는 길에 뽕잎을 따다가 누에를 먹여 보자꾸나.

17. [정답] ③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문학 - 현대 시

[정답 해설]

나희덕의 '땅끝'은 화자가 전라도 땅끝마을에 가서 바닷물에 젖은 땅끝을 보며 깨달은 것을 노래하고 있다. 늘 젖어 있는 땅끝이 아름다워 인생도 땅 끝(땅의 끝, 막다른 곳)에 선 것같이 위태롭고 힘들 때가 있어 눈물 흘리게 되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다는 역설적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다. 따라서 화자가 '땅끝'에 가서 좌절하게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땅끝을 보며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야 옳다.

18. [정답] ③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가)는 사회 복지 정책에 필요한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세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의 몫까지 강제로 많이 낸 사람들(부유층)이 오히려 사회 복지에 대한 이득을 적게 보게 될 경우(부유층이 사회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재화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개인의 자본으로 선택한 재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에 (나)는 세금을 적게 냈든 많이 냈든 모두에게 똑같은 사회 복지 재화를 강제로 제공하게 되면(부유층도 사회 복지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들만을 이용하게 하면), 재화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줄어들지만,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의 양과 질은 높아지게 된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가)와 (나)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 [정답] ④번

난이도: 하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가장 은유적(비유적)인 수수께끼를 찾으려면 된다. '빨간 꽃'이나 '눈물' 등으로 촛불을 비유한 것이 가장 은유적이다. ①, ②, ③은 '비유'라기 보다는 '난센스 퀴즈'에 가깝다.

20. [정답] ②번

난이도: 중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㉞은 '또한'이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과 병렬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에 이어 과학 기술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 부연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에서 언급한 '행복만을 가져다주지 않은 사례'를 ㉠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과 ㉡에서 언급한 '과학 기술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은 경우들'

을 근거로 하여 ㉡은 '따라서'를 시작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④ 전제는 곧 근거와 유사하다. ㉠, ㉡, ㉢에서 과학 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서술한 뒤에 ㉡에서 결론을 내렸으므로 ㉠은 ㉡의 전제가 맞다.

영 어

-정답 및 해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②	④	②	③	③	①	③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④	④	③	④	③	④	④	②

1. [정답] ②

단어숙어정리:

apathetic [æpəθetik] a. 냉담한, 무관심한

infuriate [infjuriət] vt. 격노케 하다

unblemished [ʌnblɛmɪʃt] a. 흠이 없는, 결백한

intoxicate [intáksikɛit] vt. 취하게 하다, 도취 [흥분] 시키다

해설:

흥악한 성범죄 뉴스를 볼 때마다 한 아이의 아버로서 분노가 치밀었다.

2. [정답] ④

단어숙어정리:

take up 시작하다, 착수하다

get off 그만두다, 내려오다

bring out 꺼내다, 출판하다, 발표하다

pass up (기회를) 놓치다, 무시하다, 거절하다

해설:

볼트는 더 많은 아이들이 운동을 하길 원했고 단거리 선수로서의 선수 경력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3. [정답] ②

해설:

이 글은 가축이 운송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②의 경우는 전쟁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이 글 전체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transport가 된다. 그런데 ②의 경우만 이 단어가 들어 있지 않음을 생각하는 것도 풀이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revolutionize [rɛvəlú : ʃənàiz] vt. 혁명[대변혁]을 일으키다

domestication [dəmɛstíkɛɪʃən] n. 길들이기

by land 육로로

yoke [jouk] v. 멍에로 연결하다, (마소를 수레·쟁기에) 매다

chariot [tʃæriət] n. (고대의) 전차(戰車)

proceed to v 계속해서 ~하다, ~하기 시작하다

warfare [wɔ : rfɛə : r] n. 전투, 전쟁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n large quantities 다량으로

overland [óuvərlænd] ad. 육로로, 육상으로

reindeer [réindɛə : r] n. 순록(馴鹿)

Bactrian camel 쌍봉낙타

hitch [hitʃ] v. (말 따위를) 매다

sled [sled] n. 썰매

llama, lama [lá : mə] n. 야마, 아메리카낙타

respectively [rispɛktivli] ad. 각각

해설:

대형 가축들이 19세기 철도가 나올 때까지 육상 수송의 주요 수단이 되어 인간 사회를 더욱 혁신시켰다. 동물을 길들이기 이전에는 육로로 물건과 사람들을 수송하는 유일한 수단은 사람의 등이었다. 나중에 말이 마차와 다른 탈 것에 묶이게 되자 말이 끄는 전차가 전쟁을 혁신하기 시작했다. 대형 포유동물이 이것을 변화시켰다. 인간 사회에서 처음으로 장거리를 대단히 빠르게 육로로 사람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람이 탈 수 있는 가축들은 말, 당나귀, 야크, 순록 그리고 아라비아낙타와 쌍봉낙타였고 야마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다섯 종의 동물들이 짐을 수송하는데 이용되었다. 소와 말들이 마차에 묶였고 북극지방에서는 순록과 개들이 썰매를 끌었다. 말은 대부분의 유라시아 지역에서 장거리 수송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은 세 종의 길들인 낙타들이(아라비아낙타, 쌍봉낙타 그리고 야마)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각각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

4. [정답] ③

해설:

지문 첫 문장에서는 예술 작품의 복제에 관해 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 however가 들어간 문장을 통해서 예술 작품의 기술 복제를 이야기하는 글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단어숙어정리:

reproducible [ri : prɛdjú : səbəl] a. 재생 가능한, 복사할 수 있는

artifact [á : rtəfækt] n. (천연물에 대해) 인공물

replica [réplikə] n. 모사(模寫), 복제

craft [kræft / kra : ft] n. 기능, 솜씨

diffuse [difjú : z] v. 흩뜨리다, 유포하다

in the pursuit of ~을 추구하는

intermittent [intərmítənt] a. 때때로 중단되는, 간헐적인

in leaps 비약적으로

at long intervals 간혹

accelerate [æksélərɛit] v. 빨리하다, 가속하다

intensity [inténsəti] n. 강렬

found [faund] vt. 설립하다, (금속을) 녹여 붓다, 주조하다

stamp [stæmp] v. ~에 도장을 찍다, (인상·생각 등을) 새겨 넣다,

~에 압형(押型)을 찍다

in quantity 다량으로, 많이

woodcut [wúdkʌt] n. 목판(화)

script [skript] n. 손으로 쓴 글

bring about 야기하다, 발생시키다

해설:

원칙적으로 예술작품은 항상 복제되어왔다. 사람이 만든 인공물은 항상 사람들에게 의해 모방되었다. 모사는 기술을 연마하는 학생에 의해서, 자신의 작품을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대가에 의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익을 쫓는 제 3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예술작품의 기술적 복사는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간헐적으로 간혹 비약적으로 그러나 상당히 강하게 발전했다. 그리스인들은 기술적으로 예술작품을 복제하는 두 가지 과정 즉 주조와 압형만을 알고 있었다. 브론즈, 테라코타 그리고 동전이 이들이 다량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예술작품이었다. 모든 다른 것들은 독특한 것이어서 기술적으로 복제할 수 없었다. 목판과 더불어 그래픽 아트가 손으로 쓴 글이 인쇄로 인해 복제 가능해지기 오래 전 처음으로 기술적으로 복제가 가능했다. 글쓰기의 기술적 복제인 인쇄가 문학에서 가져온 엄청난 변화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기해설:

① 우리는 예술 복제를 금지해야 하는가?

② 왜 글의 기술 복제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 ③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④ 그리스인들의 예술작품

5. [정답] ③

해설:

① reason이 주어일 경우 이어지는 동사 be 다음에는 이유와 관련한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대개는 that 대신에 because를 틀린 보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it is easy for ~ to v의 구조도 바르게 쓰인 것을 확인한다.

② 먼저 remember 동사가 다음에 동명사를 취해서 과거의 사실 즉 '들었던 것'을 의미한다는 점과 hang이 '교수형에 처하다'고 할 경우 hanged의 변화형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완료 시제 had not committed로 쓰인 것이 옳다는 것도 확인한다. 즉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교수형을 당한 것'보다는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③ having been observed를 having observed 또는 observing으로 한다. 목적어 his stiff neck이 있으므로 수동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insist on은 바르게 쓰인 것이다.

④ make 동사가 불완전타동사인데 수동이 되면서 보어인 형용사 redundant만 남게 된 것을 확인한다.

단어숙어정리:

capital punishment 사형

hear of ~에 대해 듣다

redundant [rɪdʌndənt] a. 여분의, 과다한

make ~ redundant ~를 정리하고 하다

due to ~때문에

해석:

① 내가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법이 쉽게 실수를 저지룰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나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으로 인해 교수형을 당한 티모시 에반스의 사례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

③ 톰의 뻔뻔한 목을 본 적이 있는 톰의 반 친구중의 한 명이 그가 의사의 진찰을 받아볼 것을 고집했다.

④ 경기 침체 때문에 2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정리 해고됐다.

6. [정답] ①

해설:

① 자동차 rise를 쓴 것, 그리고 차이의 전치사 by를 사용한 것 모두 바르게 쓰였다.

② be related to에서 to는 전치사이므로 다음에 오는 동사는 동명사가 돼야 한다. 고로 make를 making으로 한다.

③ by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능동이 아닌 수동이 돼야 한다. 즉 evicting으로 being evicted로 해야 한다.

④ surrounding을 surrounded로 한다. 옆에 by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수동이 돼야 하고 또한 타동사 surround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의 과거분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숙어정리:

be related to ~와 관련이 있다

be on the point of 막 ~하려하다

evict [ɪvɪkt] vt. (가옥·토지에서) 퇴거시키다, 쫓아내다

bailiff [béilɪf] n. 집행관

해석:

① 그가 투자한 것의 가치가 5만 달러 이상 올랐다.

② 광고를 만드는 것에 관련된 직업이 많이 있어요.

③ 세 번째 남자가 집행관에 의해 쫓겨날 판이었다.

④ 만일 해파리에 둘러싸인 바다에 있다면, 해파리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7. [정답] ③

해설:

회사에서 직원은 더 뽑지 않고 있어 쉴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다. 따라 업무 부담이 크다고 말하는 ③이 정답이다.

단어숙어정리:

keep down 낮게 유지하다

be overwhelmed with [by] ~에 압도되다

해석:

A : 너 휴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루 이틀 정도라도 좋을 텐데.

B : 그렇게 못해. 일이 너무 많아.

A : 하지만 너 너무 지쳐 보여. 넌 휴식이 필요해!

B : 알아. 사람을 더 뽑으면 나를 텐데.

A : 사람을 더 안 뽑을 거래?

B : 아니. 항상 비용을 낮추길 원하니까. 많은 업무량에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8. [정답] ②

해설:

빈칸 뒤의 B가 "2주 후에 준비해 놓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자신의 맘에 들어 이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단어숙어정리:

the best of both worlds 다양한 면에서 좋은 점

move in 이사 오다

move out 이사 가다

before long 조만간, 곧

해석:

A : 이봐요, 저는 지하철과 제 직장에 가까운 아파트를 찾고 있다고요.

B : 그렇게 다른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집을 찾고 있으시다고요? 제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A : 정말이요? 그거 잘됐네요!

B : 지하철 도보 5분 거리와 당신의 직장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인 집의 거주인이 이사를 나가는 곳이 있어요.

A : 완벽하네요. 제가 언제 이사를 들어갈 수 있죠?

B : 2주 후에 준비되도록 할게요.

9. [정답] ④

해설:

④가 들어갈 자리가 되겠다. 즉 ④ 앞에서는 파충류들이 '~할 수 없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④는 But을 통해서 새로운 포유동물과 조류의 파충류와는 상반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① 이후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not A but B의 구조가 된다고 이해를 하고 푸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힌트는 주어진 문장은 과거 시제를 담고 있고 ①, ②, ③, 앞의 문장은 모두 현재 시제를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④ 뒤의 시제가 과거완료로 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의 A teachable type of life는 주어진 문장의 the new mammalian and avian strains를 가리키고 있음도 확인해야 한다.

단어숙어정리:

infinite [ɪnfənɪt] a. 무한한

incessant [ɪnsəsənt] a. 끊임없는

eternal [ɪtə : nəl] a. 영구[영원]한

Cainozoic [kàɪnəzúɪk, kèi-] a. 신생대의

Mesozoic [mèzəzúɪk, mès-] a. 중생대의

mammalian [məmèɪliən] n. a. 포유류, 포유류 동물, 포유류의 in a lesser degree 더 낮게

reptile [réptil, -tail] n. 파충류의 동물
 whatever (부사로 부정어 강조) 전혀
 such as it is 보잘 것 없지만, 형편없지만
 concerted [kənsé : rtid] a. 합의한, 협력한
 suckle [sʌkəl] v. ~에게 젖을 먹이다
 cherish [tʃérɪʃ] vt. 소중히 하다, 품다
 distinctive [distɪŋktɪv] a. 독특한, 구별이 분명한
 avian [éivɪən] a. 조류의

해석:

우주의 다양성은 무한하고 끝이 없으며 영원히 발전한다. 역사는 결코 되풀이하지 않으며 정확히 딱 들어맞는 유사한 것은 없다. 신생대와 중생대의 생명체 사이의 차이점이 유사점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모든 차이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 두 시대의 정신 구조에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부모와 새끼의 접촉에서 나오는데 이는 바로 포유동물과 더 낮게는 조류의 생활을 파충류의 생활과 구별해 주고 있다. 거의 예외없이 파충류는 혼자 부화하도록 알을 버린다. 새끼 파충류는 어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 파충류의 정신적 삶은 비록 보잘 것 없지만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 시작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끝난다. 파충류는 자신의 동료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동료들과 서로 소통하지는 않는다. 파충류는 결코 모방하지도 배우지도 않고 합의된 행동도 할 수 없다. 즉 파충류의 삶은 고립된 개체의 삶이다. 그러나 새로운 포유동물과 조류를 구분해주는 새끼에 젖을 물리고 새끼를 품는 행위와 더불어 모방을 통한 학습의 가능성, 대화의 가능성, 그리고 경고의 소리와 다른 단합된 행동을 통한 그리고 상호 통제와 가르침의 가능성이 생겨났다.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가 세상에 나온 것이다.

10. [정답] ②

해설:

(A)의 These rainstorms는 (B)의 rainstorms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면 대단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C)의 The rising air는 (A)의 buoyant air rises 이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A) 다음에 (C)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순서 배열 문제는 지시사, 관사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단어숙어정리:

thunderstorm [θʌndə : rstɔ : rm] n. 천둥을 수반한 일시적 폭풍우, (심한) 뇌우
 localize [lóukəlaɪz] v. 한 지방에 그치게 하다, 국한하다
 take for granted ~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torrential [tɔ : rénʃ-əl] a. 급류의[같은], 격렬한
 mean rainfall 평균 강수량
 order of magnitude 어떤 수치에서 그 10배까지의 범위
 maritime [mæratəɪm] a. 바다의, 해상의
 manifestation [mænəfɛstéɪʃ-ən] n. 표현, 표시
 convection [kənveksjən] n. 전달, 대류(對流)
 thermal [θé : rm-əl] a. 열의
 infrared [ɪnfrəd] a. 적외선의
 offset [ɔ : fsét, ðf-] v. ~와 상쇄[상계]하다
 evaporate [ivæpəreɪt] v. 증발하다, 증발시키다
 condense [kəndéns] v. 응축하다
 buoyant [bóɪənt] a. 부양성 있는, 쾌활한
 droplet [drɒplɪt] n. 작은 물방울
 aloft [əlɔ(:)ft] ad. 위에, 높이
 precipitation [prɪsɪpətéɪʃən] n. 투하, 낙하, 강수량
 updraft [ʌpdræft] n. 상승 기류
 vigorous [vígerəs] a. 정력 왕성한, 활발한
 collide with ~와 충돌하다
 fluffy [flʌfi] a. 솜털의[같은]
 pellet [pélɪt] n. (종이·뽕·초 등의) 둥글게 뭉친 것, 돌멩이

ice pellets 우박, 싸라기눈
 graupel [gráupəl] n. 싸라기눈
 해석:

뇌우는 다른 극한의 날씨보다 관심을 덜 받는데 이는 뇌우가 대단히 흔하고 끼치는 피해가 국지적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뇌우가 당연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번개는 미국에서(홍수 다음으로) 기상 관련 사망의 두 번째 가는 주요 요인이다. 대부분의 폭우를 동반한 짧은 수명을 지닌 폭풍우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지 않는다. 나사의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의 자료가 연 강수량이 육지보다 바다에서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번개는 해상 폭풍우보다 육지 폭풍우에서 10배 가량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폭풍우는 대기에서 대류의 과정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햇빛과 열적외선에 의한 지구 표면의 가열 현상은 안정적인 온도 유지를 위한 에너지 손실에 의해 상쇄된다. 이 표면은 증발하는 물, 그러다 부양성 공기가 상승하면서 농축이 되는 물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상승하는 공기는 물방울을 위로 가지고 가서 그러다 공중에서 떠서 있기에 너무 커지면 비가 돼서 내린다. 상승기류가 활발하면 물방울은 쉽게 어는 고도로 올라가고 일부는 솜털 같은 얼음 결정체와 부딪쳐 싸라기눈이라고 불리는 더 크고 더 밀도가 높은 얼음 덩어리가 된다.

11. [정답] ①

단어숙어정리:

benign [bináin] a. 자비로운, 친절[다정]한
 hail [heil] v. 환호하여 맞이하다
 hail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부르며 맞이하다]
 decisively [disáisiv] ad. 결정적으로, 단호히

해석:

금요일에 시라크가 크렘린에서의 푸틴 재임 기간을 “러시아의 위대한 시간”이었다고 외치자 푸틴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시라크는 푸틴과의 깊은 우정을 과시했다.

12. [정답] ①

단어숙어정리:

under one's hat 비밀의
 be associated with ~와 연관되다, ~이 연상되다
 punctuality [pʌŋktɪfʊæləti] n. 시간[기간] 엄수
 해석:

처음 들으면 이것은 다소 이상한 표현처럼 보인다. 왜 사람들은 어떤 것을 모자 속에 두는 걸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왜 그것이 비밀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13. [정답] ④

해설:

이 글은 전체가 lime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와 함께 lime의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을 담고 있는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된다.

단어숙어정리:

indispensable [ɪndɪspénsəbəl] a. 불가결의, 없어서는 안 될
 cuisine [kwízi : n] n. 요리솜씨, 요리
 stomach [stámək] v. 소화하다, (모욕 따위를) 참다, 견디다
 to blame for ~에 책임이 있다
 grip [grip] v. 꼭 쥐다, 이해하다, 방해하다
 creep into ~에 몰래 들어가다
 deleterious [dɛlətəriəs] a. 해로운
 shrink [frɪŋk] v. 오그라들다. (수량·가치 등이) 줄다
 해석:
 신선한 라임은 멕시코 요리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과일이지만 그 가격

을 건디기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라임 가격이 멕시코에서 지난 달 1킬로당 10페소 아래에서 1킬로 당 30페소로 급등해서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200%나 상승했다. 기후 변화와 카르텔간의 전쟁이 라임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다. 북미를 괴롭히고 있는 북극의 날씨가 멕시코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쳤고 멕시코의 라임 재배농가에 해를 입혔다. 멕시코 최대 라임 생산지의 적어도 세 곳, Colima, Guerrero 그리고 Oaxaca이 이미 기상 악화와 관련한 수확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다. “만일 가격이 오르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후와 관련이 있다.”고 멕시코 경제 장관인 Ildefonso Guajardo가 지난 주 말했다. 그리고 높은 가격이 겨울 내내 계속될 수 있다.

보기해석:

- ① 멕시코인들이 높은 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다
- ② 멕시코 라임 카르텔이 여전히 날뛰고 있다
- ③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 ④ 왜 멕시코 라임이 그토록 비싼가

14. [정답] ④

해설:

이 글은 인쇄기의 발명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④는 부정적인 어조로 되어 있어 글 전체 흐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단어숙어정리:

prior to ~이전에

laborious [ləˈbɔːriəs] a. 힘든, 고된

hand-scribe 손으로 쓰다

literacy [lɪtərəsi] n. 읽고 쓰는 능력

affordable [əfədˈrɛdəbəl] a. 입수 가능한, (값이) 알맞은

obsolete [əbsəliːt] a. 쓸모없이[못쓰게] 된

manuscript [mænʃəskript] n. 원고, 필사본

crude [kruːd] a. 가공하지 않은, 투박한

해석:

오랜 기간에 걸쳐 인쇄기가 일반인들이 인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었다. 인쇄기 이전에는 책이 대단히 비쌌는데 이는 책을 손으로 쓰는 것은 고된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지 엘리트만이 책을 구입할 여유가 있고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인쇄기의 발명과 더불어 더 나은 품질의 책이 출판되었고 책을 대량으로 제작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따라서 일반 대중이 더욱 손쉽게 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1500년에 이르러서는 1500만부에서 2000만 부에 달하는 30,000에서 35,000개의 별도의 간행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인쇄기는 또한 교육 행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McLuhan이 말한 대로 인쇄된 책은 일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 교재이어서 과거의 교육을 쓸모없게 만들기도 했다. 책은 글자 그대로 가르치는 기계였고 반면에 손으로 쓴 책은 투박한 교습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15. [정답] ③

해설:

지문 하단의 the Verbal scale alone can be used with examinees who are visually or motor impaired. 이 부분을 그대로 표현한 ③이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①은 ‘각 연령 집단에 따라 1,800명의 실험 대상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이다. 1,8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이며 이들이 9개의 다른 연령 집단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이다. ② ‘10개의 직업군으로 나뉜다’가 잘못이다. ④ 지문 마지막 문장에 해당되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little emphasis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absolute emphasis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단어숙어정리:

range from A to B 범위가 A에서 B에 이른다

stratify [strætəfaɪ] v. 층을 이루게 하다, (사람을) 계층별로 분류하다
break down 분류하다, 나누다

in line with ~와 조화[일치]하여

examinee [ɪgzæməniː] n. 수험자, 검사[신문, 심리]를 받는 사람

impair [ɪmpeər] vt. 해치다, 손상하다

해석:

WAIS(R)은 16세에서 74세에 이르는 11,800명의 미국 실험 대상을 샘플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대단히 계층화된 샘플이며 9개의 다른 연령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동수의 남녀가 활용됐고 인구 통계에 따라 백인과 유색인종 동수가 활용됐다. 이것은 더 나아가 지리적으로 미국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6개의 직업군으로 나누었다. WAIS-R은 두 개의 척도 즉 언어와 수행 능력에 대해 별도의 IQ를 부여한다. 이 두 척도는 사람이 특정 강점이나 약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별도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척도가 있는 이 실험의 의도는 언어와 수행 능력 척도가 별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erformance 파트만을 언어를 적절히 이해하고 다룰 수 없는 수험자에게 활용될 수 있고 또한 Verbal 파트만도 시각 장애나 운동 장애가 있는 수험자에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시험에서 속도는 거의 강조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의 하위 테스트는 제한 시간이 있고 일부 하위 테스트는 속도에 대해 보너스 점수가 주어지기도 한다.

보기해석:

- ① WAIS(R)은 각 연령 집단에 따라 1,800명의 미국 실험 대상에 시행됐다.
- ② WAIS(R)은 미국 전 지역을 포함하는 10개의 직업군으로 나뉘어졌다.
- ③ WAIS-R의 Verbal 파트는 시각 장애가 있는 수험자에게 이용될 수 있다.
- ④ WAIS-R은 속도에 절대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어 테스트는 시간제한이 있다.

16. [정답] ④

해설:

빈칸 바로 앞에서 these traditional threats to liberty are not the only ones to worry about. (이런 전통적인 자유에 대한 위협이 걱정할 유일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런 전통적인 위협 말고 다른 위협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but of the majority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단어숙어정리:

influential [ɪnfluːnʃəl] a. 영향을 미치는, 세력 있는

monarchy [ˈmɒnərki] n. 군주제, 군주 정치

aristocracy [ˌæristɒkrəsi] n. 귀족정치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restriction [rɪstriktʃən] n. 제한, 한정, 구속

benevolent [ˌbɛnəˈvələnt] a. 자비심 많은, 친절한, 인정 많은

ruler [ˈruːləːr] n. 통치자, 주권자

unaccountable [ʌnəˈkaʊntəbəl] a. 설명할 수 없는, 책임을 지지 않는
in one's interests ~을 위하여

the governed 피지배자

in particular 특히

restrict [rɪstrikt] vt. 제한하다, 한정하다

the ruled 피지배자, 지배당하는 사람

Philosophical Radical 철학적 급진주의자

be meant to do ~하지 않으면 안 되다, ~하기로 되어 있다

make clear that S+V ~을 분명히 하다

tyranny [ˈtɪrəni] n. 폭정, 전제 정치

set out to v 자신해서 ~하다

articulate [ɑ : rtɪkjələɪt] v. 분명히 말하다

해석:

밀의 On Liberty는 그의 개방적인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자유에 대한 신구의 위협을 구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유에 대한 이전의 위협은 한 사람에 의한 통치(군주정치) 또는 소수에 의한 통치(귀족정치)가 있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찾는다. 비록 자비로운 군주나 귀족에 의한 자유에 대한 제약에 대해 걱정할 수 있겠지만 전통적인 걱정은 통치자가 정치적으로 지배받는 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이들은 통치 받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통치받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백성들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철학적 급진주의자들의 민주개혁이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자유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위협이었다. 그러나 밀은 자유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위협이 걱정해야 할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민주국가도 자유에 대한 나쁜 위협을 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나 소수의 폭정이 아니라 다수의 폭정이다. 밀은 민주적이든 아니든 어떻게 정부와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규정해야 할 기준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17. [정답] ③

해설:

- ① teach+목적어+to v의 구조, 그리고 provide A with B의 구조 모두 바르게 쓰였다.
- ② 타동사 find out이 다음에 if절을 목적으로 취한 것은 옳고 than이 있어 비교급이 있는 것도 옳다.
- ③ 주어인 A new study와 동사 discover의 의미 관계가 능동이므로 수동의 has been discovered가 아니라 능동의 has discovered로 하는 것이 옳겠다. 물론 that을 그대로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능동이 돼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 ④ despite가 전치사로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고 있다. 바르게 쓰인 것이다.

18. [정답] ④

해설:

- ① 사역동사 make가 원형부정사 look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making makeup은 동명사로 동사 makes의 주어로 쓰였다.
- ② it is not until B that A(S+V)의 구조로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하다'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다.
- ③ with a view to+v-ing(~하기 위해서)의 표현을 아는지 묻는다. 이때 to는 전치사이므로 다음에 오는 동사를 동명사로 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 ④ when절이 부사절이고 이 절 속의 시제가 과거일 경우는 주절의 시제도 과거를 담는 것이 옳다. 따라서 do를 did로 해야 한다. 물론 부정 부사인 never in the world가 문두에 와서 도치를 이룬 것도 확인한다.

19. [정답] ④

해설:

- ①은 빈칸 바로 앞의 Knowledge와 대조가 되는 Wisdom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어 on the other hand가 답이 되며 ④은 바로 앞의 Knowledge can be passed~와는 대조가 되는 Wisdom cannot be bestowed가 나오고 있어 however가 답이 된다.

단어숙어정리:

be close to ~와 가깝다

the one ~ the other 전자 ~ 후자

contrast A with B A를 B와 대조하다

harbor [hɑ : rbər] v. 감추다, 숨기다, 품다

inseparable [insépərəbəl] a.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so long as ~하는 한

unconsumed [ʌnkənsjũ : md] a. 소모되지 않은

have yet to v 아직 ~하지 않다

inanimate [inænəmit] a. 생명 없는, 죽은

put into practice ~을 실행하다, ~을 실천에 옮기다

pass on 전하다

bestow [bistəu] vt. 주다, 수여[부여]하다

reaffirm [ri : əfə : rm] vt. 재확인하다, 다시 단언하다

해석:

지혜는 지식과 대단히 가까이 있어서 지혜는 지식과 접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다. 지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형제인 지식과 대조를 해야 한다. 지식은 책, 도서관, 웹사이트에서처럼 어느 누가 그것을 지니지 않고서도 존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혜는 주인과 분리할 수 없다. 아직 읽지 않은 책처럼 지식을 섭취하지 않는 한 지식은 죽은 채로 있게 된다. 그러나 일단 그 책을 읽고 그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면 지식은 지혜를 탈바꿈할 수 있다. 따라서 지혜의 정의는 살아있는 지식이다. 지혜가 살아있고 지식은 죽은 것이어서 이 둘은 다른 수명을 지닌다. 지식은 단지 책을 건넌 것으로 해서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줄 수 있다. 그러나 지혜는 줄 수가 없다. 지혜는 획득해야 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다시 확인돼야 한다. 살아있는 지식은 무한한 수명을 소유하고 그 후에 지혜는 반드시 죽게 된다.

20. [정답] ②

해설:

지문 중간에 Death Valley, the lowest place in the United States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②가 정답이 된다. 단어숙어정리:

basin [béisen] n. 물웅이, 분지, 유역

plateau [plætəu] n. 고원, 대지

lava [lɑ : və, lævə] n. 용암

seep [si : p] vi. 스며 나오다

erode [irəud] v. 침식하다

mesa [méisə] n. [지질] 메사, (주위가 절벽을 이루는) 봉우리가 평평한 산

steep [sti : p] a. 가파른

plunge [plʌndʒ] v. 감소하다, 떨어지다, 급락하다

flatten [flætən] v. 평평[반반]하게 하다, 평평해지다

elevation [ələveɪʃən] n. 높이, 고도

해석:

건조한 분지와 대지가 태평양 산맥과 로키 산맥 사이의 지역을 메우고 있다. 북쪽의 콜롬비아 대지는 지구의 갈라진 틈을 통해 스며 나온 용암에 의해 만들어졌다. 심하게 침식된 콜로라도 대지는 봉우리가 평평하며 콜로라도 강의 웅장한 그랜드 캐니언이 있다. 이 캐니언의 가장 깊은 곳은 절벽이 6,000 피트나 된다. 그레이트 베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낮은 곳인 죽음의 계곡을 품고 있다. 캐나다 대지는 미국의 대지보다 더욱 좁고 좁다. 로키 산맥 동쪽으로는 이 땅이 아래로 기울고 이 지역 중앙을 가로질러 300~700 마일 뻗어 있는 그레이트 플레인즈로는 평평하게 나 있다. 그레이트 플레인즈는 해발 6000 피트에 달한다. 비록 이 평원이 평평해 보이지만 땅은 1마일에 약 10피트 정도 아래로 기울어 미시시피 강을 따라 중앙 저지대로 행하고 있다. 보기해설:

① 정상이 평평한 콜롬비아 대지는 용암으로 만들어졌다.

② 죽음의 계곡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곳이다.

③ 그레이트 플레인즈는 300~700 마일 뻗어 있다.

④ 그레이트 플레인즈는 보기와는 달리 평평하지 않고 아래로 기울어 있다.

한국사

-정답 및 해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③	③	④	②	①	③	①	④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④	④	①	②	③	②	②

01. [정답] ③

제시된 자료는 죽어서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이 내려주었다는 ‘만파식적’에 대한 내용으로, 밑줄 친 ‘대왕’은 신문왕(681~692)이다.
 ③ 신문왕 때는 군사 제도를 중앙군인 9서당과 지방군인 10정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왕을 중심으로 한 군사권을 강화하였다.
 ① 장보고는 흥덕왕 3년(828)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② 태종 무열왕은 직계자손의 세습제를 확립하여 왕권을 안정시켰으며, 왕의 동생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던 갈문왕 제도를 폐지하였다. ④ 소지왕 9년(487)에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였다.

02. [정답] ③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사건은 1929년 11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③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으며, 이듬해 5월까지 전국적인 동맹 휴학, 학생 항일 시위로 발전하였다.
 ① 3·1 운동으로 인해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 ② 6·10 만세 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하여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듬해 민족 유일당이 신간회 결성으로 이어졌다. ④ 순종 인산일에 일어난 만세 시위는 6·10 만세 운동(1926)이다.

03.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숙종 38년(1712)에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④ 백성들의 군역 부담 완화를 위해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군역법을 시행한 국왕은 영조이다.
 ① 숙종 8년(1682) 수도 경비와 국왕 숙위를 담당하는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5군영 체제가 완비되었다. ② 기사환국(1689) 당시 후궁(희빈 장씨)이 낳은 왕자가 원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였으며,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되었다. ③ 상평통보는 숙종 4년(1678) 법화로 지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04.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전명운의 스티븐스 사살 사건으로, 1908년 3월의 사실이다.
 ② 1907년 2월 경 나철과 오기호 등은 자신회(5적 암살단)를 조직하여 을사조약에 동의하였던 매국노 등을 처단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① 안중근의 의거는 1909년 10월의 역사적 사실이다. ③ 남한 대토벌 작전은 1909년 9월 의병 토벌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④ 1911년 1월 일제가 낚조한 105인 사건을 계기로 신민회가 해체되었다.

05. [정답] ①

제시된 자료는 신라 지증왕에 대한 설명이다.
 ① 지증왕 대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고, 서울의

동쪽에 동시를 설치하였다.

② 분황사 모전석탑은 선덕 여왕 때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이다. ③ 진덕 여왕 대 종래 왕실의 가신적 성격이 농후했던 품주를 집사부로 개편하여 왕정의 기밀 사무를 맡게 하고 재정의 역할은 창부로 이관하였다. ④ 법흥왕 때 이찬 철부를 처음으로 상대등으로 삼으면서 국왕권과 귀족권의 타협의 산물로서 상대등 제도가 실시되었다.

06. [정답] ③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단체는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1945년 8월 15일에 결성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이다.
 ③ ‘건준’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아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① 김성수, 송진우 등 우익 인사는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와 대립하면서 1945년 11월 한국민주당이라는 우익 정당을 창당하였다. ② 미군정청은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수립을 시도한 인민 공화국과 충청에서 입국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모두 부정하고 친미적인 우익 정부의 수립을 지원하였다. ④ 1946년 5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조선 공산당이 정판사에서 재정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발행한 사건이다.

07. [정답] ①

밑줄 친 (가)는 최충헌(집권기 : 1196~1219)이다.
 가. 1198년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이 개경 복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공·사 노비들을 모아놓고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봉기를 계획하였다. 만적은 모인 노비들의 동조를 얻은 후, 치밀하게 세운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나. 최충헌은 경대승 때 권력 강화 기구로 설치된 도방을 다시 확대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고 무단 정치를 강화하였다. 다. 『삼국유사』는 선종 승려 일연이 충렬왕 7년(1281)에 편찬하였다. 라. 이연년 형제의 난은 최우 무신 집권기인 1237년의 사실이다.

08.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세종 28년(1446) 한글 창제(정음 28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밑줄 친 ‘우리 전하’는 조선 세종이다.
 ④ 세조 7년(1461) 불교 진흥책으로서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한자밖에 없던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 간행하였다.
 ① 세종 때 이천과 최윤덕이 4군을, 김종서가 6진을 개척함으로써 현재의 국경선을 확보하였다. ② 세종 때에는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③ 세종 13년(1431) 집현전 부제학 설손 등이 왕명에 따라 조선과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 부자, 부부 등 3강(三綱)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의 이야기를 모아 총 300여명의 행적을 그림과 글로 칭송한 책인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09. [정답] ③

밑줄 친 ‘그’는 조광조이다.
 ③ 중종 때 등용된 조광조는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현량과를 실시하여 과거 제도의 폐단을 개혁하고,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할 목적에서 어진 선비를 등용하려 하였다.
 ① 『조선경국전』(1394)은 정도전의 저술이다. ② 『조의제문』은 김종직이 저술하였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항우와 의제에 빗대어 하였는데, 이것을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실으면서 이후 무오사화의 원인이 되었다. ④ 중종 38년(1543) 풍기 군수 주세붕이 안향과 안축을 봉사하는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10. [정답] ③

제시된 자료는 갑신정변 발발에 대한 내용으로, 밑줄 친 ‘오적’은 김옥균, 박영효 등 갑신정변을 주도한 세력은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하였다.

③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가 제시한 14개조 개혁 정강 중 12조의 내용이다.

① 갑오개혁 때인 1894년 12월 발표된 흥범 14조에 수록된 내용이다.

② 1894년 5월 8일 동학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의 내용이다.

④ 1898년 10월 관민공동회 때 독립협회가 결의한 헌의 6조의 내용이다.

11.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신석기 시대의 주요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이다.
ㄴ.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곡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조리하여 먹었다. 또한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뽑은 실로 옷이나 그물을 만들기도 하였다. ㄹ. 신석기 시대에는 강가나 해안가에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바닥의 움집을 짓고 생활하였다.

ㄱ. 고인돌과 돌널무덤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다. ㄷ. 주먹도끼와 스페르르개의 제작은 구석기 시대의 사실이다.

12. [정답] ①

제시된 자료는 정조가 창덕궁 존덕적 현판에 직접 쓴 「만천명월주인옹자서」이다.

① 정조는 명나라에서 백과사전으로 『고금도서집성』을 수입하여 규장각에 비치하였다.

② 극단적 당론을 내세우던 강경파를 배제하고 이쪽과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 온건적 타협적 인사를 등용한 것은 영조 대의 완론 탕평이다. 정조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 탕평인 준론 탕평을 지향하였다. ③ 철종 2년(1851) 산해허통을 통해 법제적으로 서얼의 문반직 및 청요직 진출이 가능해졌다. ④ 『대전회통』은 고종 대 흥선대원군 주도로 편찬한 조선 최후의 법전이자 최대 규모의 법전이다. 정조 때에는 조선 전기 『경국대전』과 조선 후기 『속대전』을 합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13. [정답] ③

제시된 자료에서 밑줄 친 ‘그’는 궁예이다.

ㄴ. 궁예는 6두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여 골품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제도를 모색하였고,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고 9관등제를 실시하였다. ㄷ.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따르면, 궁예가 부석사에서 신라왕의 화상을 발견하고 칼로 찼다는 일화가 전한다.

ㄱ. 견훤은 중국의 오월, 후당과도 통교하며, 국내에서의 권위를 강화하고 나아가 후삼국 간의 관계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였다. ㄹ. ‘천수’ 연호는 고려 태조 왕건이 사용하였다.

14. [정답] ④

제시된 자료에서 밑줄 친 ‘이 나라’는 발해이다.

④ 『신당서』 발해전에는 발해의 중요한 특산물로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곤포,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솔빈부의 말, 현주의 포(布), 옥주의 면, 용주의 주(紬), 위성의 철, 노성의 쌀, 미타호의 붕어가 있고, 과일에는 환도의 오얏, 악유의 배”를 설명하고 있다.

① ‘대창’은 신라 진흥왕의 연호, ‘인평’은 신라 선덕여왕의 연호이다.

②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을 파견한 것은 신라이다. ③ 평시서는 고려 시대에 개경 등 도시 상행위를 감독할 목적에서 설치된 경시서가 조선 세조 이후 개편된 것이다.

15. [정답] ④

밑줄 친 (가) 단체는 1919년 11월 김원봉, 윤세주가 만주 길림에서 조직한 의열단이다.

④ 1926년 나석주의 의거를 끝으로 개별적 무장 투쟁에 한계를 인식한 김원봉은 대중 운동에 대한 자각과 체계적인 군사 조직의 결성과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스스로 중국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한 후 부하들을 입교시켜 군관들을 본격적으로 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32년에는 조선혁명 정치간부 군사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① 중·일 전쟁은 1937년 7월에 일어났고, 의열단은 김원봉과 윤세주 등 밀양 청년 13명이 중심이 되어 1919년 11월 만주 길림에서 조직되었다. ② 1937년 8월 김구는 한국국민당을 중심으로 조소앙의 (재건)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과 함께 한국 광복운동단체 연합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의열단 등 한국 광복운동단체 연합회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은 1937년 12월에 난징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다. ③ 1912년 임병찬 등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복벽주의를 바탕으로 대한 제국의 회복을 추구한 대한 독립의군부를 결성하였다.

16. [정답] ①

제시된 자료 (가)의 인물은 퇴계 이황, (나)는 율곡 이이이다.

① 『격몽요결』은 율곡 이이가 성리학 초심자를 가르치기 위해 저술하였다.

② 이황의 『주자서절요』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공헌하였다. ③ 이이는 주기론자로서 경험적 현실 세계를 중시하여 다양한 사회 경장론을 제시하였고, 방납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공물을 쌀로 거두는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④ 이이의 『기사실기』(1580)는 기사를 높이 존송하면서 민본주의와 왕도정치의 시각이 기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였다.

17. [정답]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그’는 의상이다.

② 의상은 문무왕에게 ‘민심의 성’을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사(役事)를 중시시켰다.

① 자장은 승려들의 엄격한 금욕 생활과 의식을 강조한 계율종을 개창하고 대국통이 되어 신라 불교를 총관하였다. ③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는 『십문화쟁론』을 통해 화쟁 사상을 제시하였다. ④ 신라 말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들여온 인물은 선종 승려인 도선에 해당한다.

18. [정답] ③

제시된 자료는 이승휴의 『제왕운기』의 내용 중 일부이다. 『제왕운기』는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상권은 중국의 역사를 하권의 『동국군왕개국연대』에서는 단군의 전조선(前朝鮮)부터 후고구려, 후백제, 발해사까지를 7언시로 서술하였다.

③ 이승휴의 『제왕운기』(1287)는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상권에서는 반고에서 금까지의 중국 역사를 7언시로 다루었고, 하권에서는 단군부터 고려 충렬왕까지 우리 역사를 5언시로 서술하여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였다.

①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삼국사기』(1145)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이다. ② 일연의 『삼국유사』(1281)에는 민간 설화와 신라의 향가 14수가 전해지고 있다.

④ 이규보는 「동명왕편」(1193)에서 동명왕을 천제의 손자로 인식하고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하며 영웅으로 드높였다.

19.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1979년 8월 YH 무역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②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

자, 여당은 국회에서 김영삼 의원을 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 반대를 외치는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1979. 10).

① 김대중 납치 사건은 1973년 8월의 사실이다. 신변상의 이유로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대중은 일본에서 반(反) 유신 활동에 앞장섰다. 이후 김대중은 일본 도쿄의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납치당하여 한국으로 연행되었다가 6일 만에 서울 자택에서 풀려났다. ③ 반 유신 투쟁이 전개되던 1974년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반(反) 정부 시위를 주도하였고, 이에 정부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이 사건을 간첩 사건과 연계시켜 탄압하였다. ④ 1970년 11월에 서울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자살하였다.

20. [정답] ②

제시어는 모두 고려시대와 관련된 사실이다. 전정연립(田丁連立)에는 대표적으로 군인전과 외역전이 있는데 직역의 세습과 함께 토지도 세습되었다. 구분전은 고려시대 전시와 체제에서 군인과 하급관리의 유가족에게 지급된 토지였다. 장생고(長生庫)는 고려시대 귀족과 사원에서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었지만 사실상 고리대로 변질되었다.

② 고려시대에는 시비법이 시작되었으나 재역전과 일역전 등 휴경전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① 풍흉의 정도를 고려하여 상상년에서 하하년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한 것은 연분 9등법으로서 세종 18년(1436)에 시행되었다. ③ 제언사는 성종 12년(1481)에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임진왜란 때 폐지되었다가 현종 3년(1662)에 복설하였다. ④ 발농사에서 밭의 이랑에 작물을 심는 농종이 밭의 고랑에도 작물을 심는 건종법으로 확대되어 단위 면적 당 농업 생산량이 급증한 것은 조선 후기의 사실이다.